



[도정질의]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축산농가 보호책은?

송범근 도의원, 슬로시티 활성화 대책, 면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등 요구

2008-06-25 14:50:15

전남도의회 송범근(담양 민주) 의원은 2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2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축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사료기반조성 대책, 사료구입 보조금 지급 방안, 한우 직영 판매점 육성, 한우 이력제 도입 등 전남도의 한우 농가 지원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농촌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소규모경영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영농법인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 받아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정부의 혜택 하에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농가는 농기계보유자에게 고비용으로 농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가중돼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지난해 말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담양, 장흥, 완도, 신안 등 4개 군에 대한 슬로시티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와 지정이후 홍보에 대해 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성공의 관건인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담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 실태와 앞으로 증가추세,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화,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금년에 문예진흥기금은 총 579개 단체에 10억 2,6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역 주민은 거의 알지 못한 채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실정이며, 지역간에도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일반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와 인접해 있고 교통 요충지인 담양·장성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농어촌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폐교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요구했다.

또,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 지급, 농어촌 지역 특성화 교육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신영삼 기자]